

‘생산인구 급감’ 대응… 지역 일자리·유연근무 확산 등 필요

경사노위 ‘1단계 공론화 추진결과’
4600여건 의견 기반 6대 과제 선정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온라인 투표
15개 문항 중 13개 찬성률 77% 넘어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의 급감에 맞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이 꼽혔다. 또 세대 간 소통과 유연근무 확산 등도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시장 공백을 메울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6일 ‘1단계 공론화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6대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특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지형 경사노위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뉴시스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위는 숙의토론 돌입에 앞서 온라인 사전 인식조사와 시민 1대1 대화 등을 진행했다. 7월24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 총 878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청년과 고령자가 함

께 일할 수 있는 고용체제와 관련한 15개 문항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13개 문항에서 찬성률이 77%를 넘겼다.

특히 고령 숙련자가 청년·후배에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항과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95.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더라도 임금 수준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문항은 59.6%로 가장 낮았다.

공론화 특위는 이 같은 사전 공론을 거쳐 두 차례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후 4600여 건의 의견을 토대로 10대 과제를 정리한 뒤, 토론회 참여 시민 277명을 대상으로 핵심과제 선정 조사를 실시했다.

평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을 선택한 비중이 74.3%로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은 65.8%,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는 61.4%였다.

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이 66.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멘토링 등을 통한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이 65.4%,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가 64.7%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등이 6대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공론화 특위는 9월 24~25일 기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시민대표 100명이 참여하는 2단계 집중공론을 진행한다. 여기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 10월14일 시민대표 30명이 참여하는 3단계 종합공론을 통해 시민제안서를 작성한다. 이어 12월8일 최종 공론을 거쳐 제안서를 공론화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권익위 “월성원전 주민 안전 우려 해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편성·집행
마을 노후 재난 대응 물자 즉시 교체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경북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안전시설 보강 민원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19개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간 서면 조정을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항시가 포함됨에 따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포항시에 교부해왔다. 그러나 포항시가 이 예산의 80%를 일반회계로 편성·집행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명확한 확인이 어려웠고, 실제 주민 방재 사업에 적정하게 쓰였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아울러 해당 구역 내 마을의 재난 경보 장비와 대응 물자가 노후화된 데다, 방사능 비상 상황 발생 시 다수 차량이 동시에 대피할 경우 교통 정체로 인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4월 권익위에 예산 교부·집행 현황 확인 및 방재 시설 보강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된 최종 조정안에 따르면, 포항시는 앞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교부받아 해당 자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하

기로 했다.

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마을의 노후 재난 대응 물자를 즉시 교체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보수·관리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비상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대피로 보강 및 구축 등 도로 건설·관리계획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사전 방송 시스템과 대응 물자, 비상대피로를 보강해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주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부발전, AI 활용 유연탄 수입·재고 관리

통합관제시스템 본격 운영

한국서부발전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전용 유연탄의 수입부터 저탄장 재고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예측·관리하는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했다.

서부발전은 ‘유연탄 수입·재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당초 10월 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핵심 기능을 조기 개통해

구축 시점을 한 달 앞당겼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의 선박운항일정자동화예측시스템(ETA-Pro)을 외항 대기와 하역, 저탄장 재고 관리까지 확장한 것이다. 그동안 기상 악화나 항만 혼잡 등 변수가 생기면 담당자의 경험과 엑셀 집계에 의존하던 방식을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했다.

시스템은 AIS(선박자동식별장치)로 위치를 30분마다 갱신하고 생성형 AI로 도

착 시간을 예측한다. 특히 각 단계의 예측 결과를 연결하는 ‘연쇄 예측’ 기능을 탑재해 선박 지연 시 저탄장 재고 전망까지 자동 재계산한다. 이를 통해 유연탄 소모 시점을 최대 90일까지 예측하고 안전재고 미달 예상 시 경보를 발송한다.

외부 용역 없이 연료 조달 부서와 AI 전환 부서, 태안발전본부 간 사내 협업으로 자체 개발한 점도 특징이다. 대규모 데이터 구축 없이도 모델을 고도화하는 ‘퓨샷(Few-shot)’ 방식을 적용했다. 서부발전은 핵심 기술인 ‘선박 도착 예측·알림 알고리즘’의 특허 출원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경기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

마사회는 그간 마사회는 직무중심의 투명한 인재육성 체계 고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돈자조금, 10개 파트너사와 점점 확대

‘한돈 파트너십’ 통해 인증패 전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올해 새롭게 출범한 ‘한돈 파트너십’을 통해 한돈 브랜드와 기업 간 협력 확대에 나선다.

한돈자조금은 이날 초 ‘2026 한돈데이(10월1일) 기념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히고, 한돈을 대표하는 육가공 브랜드 10개사에 파트너십 인증패를 전달했다.

참여 기업은 공식 후원사 명칭과 전용 엠블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한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

한돈자조금 “한돈데이를 기점으로 국민과 한돈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100일간 다양한 소비촉진 및 나눔 활동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돈으로 더 가까워지는 100일’을 주제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30곳 이상의 한돈 맛집과 지역의 특색 있는 식문화를 연결하는 K-포크 한돈벨트



를 추진한다. 소비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국 한돈 할인판매회 확대한다.

또 전국 각지의 돼지고기 축제와 지역축제에 한돈을 연계해 시식·홍보 등을 통한 지역축제 연계 한돈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한다. 김장철을 비롯한 나눔의 계절에는 전국 곳곳의 소외된 이웃에게 한돈을 전달하는 전국 한돈 나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흥 한돈자조금 위원장(사진)은 “한돈데이를 하루의 기념행사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100일간 전국 곳곳에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고 한돈의 맛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K-포크 한돈벨트를 비롯한 소비촉진 캠페인과 유통·외식업계 등 여러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히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돈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시험자료 개방

시험문제·최종정답, AI 학습 활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지 및 최종 정답을 인공지능(AI) 학습·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린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지와 최종정답에 ‘공공누리 제1 유형’을 적용한 데 이어 8월 ‘AI 유형’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누리 제1 유형은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은 물론 저작물의 변경·가공과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이 가능한 방식이다. AI 유형은 공공데이터를 AI 학습·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다.

공단은 그동안 쿼넷(Q-Net)을 통해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지와 최종정답을 공개해 왔다. 이번 개방 확대에 따라 공공누

리 홈페이지에서도 국가전문자격 시험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누리 제1 유형 적용 이후에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자료를 재가공하거나 민간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는 온라인 문제는행과 모바일학습 애플리케이션, 전자책, AI 해설 등 다양한 민간 교육·학습 콘텐츠에 활용되고 있다.

공단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자료 개방을 통해 교육·학습 콘텐츠와 AI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의 재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가전문자격 공공데이터 개방이 많은 국민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

공정한 HR 시스템 구축 등 노력

한국마사회가 ‘2026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인증제는 교육부·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한다.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

(HRD) 체계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심사해 범정부 차원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마사회는 10년 전인 2016년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그 이후 조직의 역량 강화와 공정한 HR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다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